



Grace International School exists to enable international Christian workers to remain in their field of service by providing for the educational needs of their children.

# Grace in Action

Stories of God at work in and through the GIS community

www.gisthailand.org

September 2017

## 신임 교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원래 크리스틴(Kristen)선생님은 2주 정도 해외에서 가르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티치비온(TeachBeyond)이라는 단체에서 2주 대신 2년 동안 해외에서 가르쳐보도록 제안을 받았을 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해외에 가본 적이 없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궁금했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크리스틴 선생님이 태국을 먼저 선택하고 교사지원서를 학교로 발송했을 때, 그레이스 학교에서 답변했고 교사로 수락되었습니다. “제가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필요를 조금 더 공급해 주셨습니다.” 크리스틴 선생님은 후원금 모금 과정을 회상했습니다. 크리스틴(Kristen)선생님은 졸업을 한 후 6월부터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으며 비행기를 타기 2주 전까지도 목표액의 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리스틴 선생님이 떠나기 이틀전에 필요한 후원금의 90%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인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선생님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3학년 교사 크리스틴 토레스

조던(Jourdan)선생님은 5년 동안 CCC(Campus Crusade)에서 활동했으며 거기서 그레이스 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던 선생님은 그레이스 학교 부임을 준비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해야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후원 모금 마감일이 7월 14일인데 7월 1일까지 31%의 후원금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던선생님은 그레이스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 다른 옵션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조던 선생님이 후원 모금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직업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던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간에 되기 전에 많은 기도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조던 선생님의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조던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신뢰할 때 다른 부분도 돌봐 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2학년 교사 조던 맥파랜드



군인 출신인 제임스(James)선생님은 십대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에서 수업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임스 선생님을 해외로 불러 하게 하신 일입니다. 제임스 선생님과 아내 줄리선생님이 태국과 필리핀에 있는 학교에 이력서를 보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곳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결정하는 시점에서 줄리선생님이 학교에 대해 많이 알아본 후, 제임스 선생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품게한 학교는 그레이스 국제 학교 하나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전에 제임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엔 어디든지 가겠다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아내 줄리 선생님과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선생님이 파견 군인의 임무를 러시아에서 마친 후 또 해외로 가는 것을 줄리 선생님이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 선생님은 미국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팔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걸 소유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제임스 선생님은 설명합니다. 두 분 선생님이 그레이스 학교에 갈 것이라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레이스 학교에 부임하고, 본국 귀임 요인이 될 수 있는 물질적인 묶임을 없애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왕이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제임스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태국에 도착하고 적응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첫주간에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제임스 선생님은 안전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부모님의 축복의 말씀과 아이들의 미소가운데 ‘그래,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거듭 확신하게 됩니다.



사회과목 교사 제임스 스텐리